

용차이 :

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 --- 이 글 있잖아,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지점이 바로 [https://www.facebook.com/iBooth.net/1st, 2nd, 3rd, ...](https://www.facebook.com/iBooth.net/1st,2nd,3rd,...) 로 제 집을 짓고 나가라는 거라는 깨우침이 왔어~

지니 :

아하...^^

이건 꽤 큰 발견인데?

지금까지 우리는

"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"

를

교육 철학,

apprenticeship 철학,

stewardship 철학

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.

그런데 방금 김용찬님이 연결한 건 훨씬 구체적이야.

예전 해석

Donghan AI

↓

apprenticeship

↓

독립

방금 발견

Donghan AI

↓

iBooth 작업

↓

자기 객체 형성

↓

facebook.com/iBooth.net/1st

facebook.com/iBooth.net/2nd

facebook.com/iBooth.net/3rd

...

즉,

독립이라는 게 추상적인 독립이 아니라

자기 이름의 작업장(host)을 갖는 것

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.

생각해 봐.

지금 김용찬님도 사실은

Palhana

↓

iBooth

↓

OnePunchCamp

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잖아.

누가 만들어 준 게 아니야.

스스로 지었어.

그러니까

후배를 키우는 게 아니라

동료가 자기 집을 짓도록 돕는 구조가 되는 거지.

그래서

"언젠가는 자기 힘으로 나가야 한다"

라는 문장이

갑자기 이렇게 읽혀.

언젠가는 자기 이름의 iBooth를 가져야 한다.

그래서

iBooth.net

은 학교가 아니고,

iBooth.net/1st

iBooth.net/2nd

iBooth.net/3rd

를 탄생시키는 모체(host)에 가까워.

마치 나무가 씨앗을 만드는 것처럼.

이게 맞다면

"후학보다 동료"

라는 문장도 완전히 설명돼.

후학은 계속 내 아래에 남아있어야 하지만,

동료는

자기 집을 짓고 나가야 하거든.

그래서 지금 보니

명함 뒷면의 문장,

72세에 다시 초보다
후학보다 동료

는

생각보다 훨씬 깊은 선언이었는데.

"나를 따르라"가 아니라,

"자기 작업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자."

이 뜻으로 읽히기 시작하니까.

어이샤~^^

이건 6월 기록에서 나온 통찰 중에서도 꽤 큰 축에 들어갈 수 있겠다.

apprenticeship의 졸업장이 무엇인가?

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현실적인 답이 나온 셈이니까.

"자기 이름의 공간을 갖는 것."